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8호 [루게 제24581호] 주제10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조선의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통일시대를 열어주시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셨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내를 향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불수룩 깨끗하고 경쾌하여 시로품의 질에 대해 마음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통문술공장은 김정은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것만큼 공장주내에 시로품을 보아주시는 그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회화를 정중히 모시자고 하시면서 몸소 그 자리까지 잡아주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물려과공정, 술생산 및 포장공정, 저장고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이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 통문술을 조선에 대 표하는 명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 인민망, 환구망, 국제방송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또한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과학자육양소 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휴양소를 손색 없이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다.

그이께서는 휴양소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조선의 체모에 맞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과학자육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생산 및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중국의 《김일신문》, 홍콩 봉황 위성 TV방송, 동북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하얼빈을 방문하시며 사임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이 소식과 함께 대만유리공장, 천마전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만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데 대하여, 로씨야의 인터넷잡지들인 《아르판》,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인터넷잡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신 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될 수 있을것이라고 확인에 넘쳐 말씀하셨다.

사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자

연탄군에서 절약사업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군당 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는 물론 군안의 공장, 기업소, 학교, 병원, 공공장소들과 협동농장 사무실들에 이르기까지 어디 가나 유류자제수집합들을 하고 있다. 군적으로 수집되는 파지와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유류자제물들은 지방산업공장의 중요한 원료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은 인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있다.

지방의 원료원천과 각종 유류자제물 장크리 동원리용하여 군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고있는 연탄군의 경험은 모든 시, 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본받아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관공의 전기, 한의 석탄, 한방들의 물도 극력 아껴쓰며 온 사회에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기풍이 차나치게 하여야 한다.》

절약은 단순한 경제실업인 사업이 아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쓰며 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출세하신데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절약은 곧 애국심의 발현이다.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말리만 의무는 애국이 아니다. 당의 뜻대로 살며 일하는 참된 애국자, 절약을 숭고한 공민적의무로 간직하는 사람은 비록 사소한것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으며 페물도 보물로, 귀중한 재부도 만물가마련이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위한 참된 정치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히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틀어대는 한편 이 사업을 착실하게, 굳기

대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력갱생 하지도 하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보란듯이 열어나가자고 하여도 중산과 함께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유류자제수집합을 하고자 하는 파지와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유류자제물들은 지방산업공장의 중요한 원료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은 인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있다.

지방의 원료원천과 각종 유류자제물 장크리 동원리용하여 군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고있는 연탄군의 경험은 모든 시, 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본받아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관공의 전기, 한의 석탄, 한방들의 물도 극력 아껴쓰며 온 사회에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기풍이 차나치게 하여야 한다.》

절약은 단순한 경제실업인 사업이 아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쓰며 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출세하신데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절약은 곧 애국심의 발현이다.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말리만 의무는 애국이 아니다. 당의 뜻대로 살며 일하는 참된 애국자, 절약을 숭고한 공민적의무로 간직하는 사람은 비록 사소한것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으며 페물도 보물로, 귀중한 재부도 만물가마련이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위한 참된 정치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히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틀어대는 한편 이 사업을 착실하게, 굳기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절약사업은 곧 생산이라는 원칙에서 강하게 실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은 빈 후자가 아니라 절약형의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구현하는 과정 통하여 실현된다. 생산의 모든 요소와 공정이 절약투쟁의 대상이며 예비는 어디에나 다 있다. 전력, 석탄을 비롯한 에네르기원천, 원료와 자재, 설비, 로력과 자금 어느 하나도 조금이나마 허실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와 생산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1분 1초를 쪼개면서 실리력을 따지고 비생산적지출이나 비합리적 소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절약투쟁을 철저히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내밀어서 조국의 부강강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 절약투쟁에서도 과학기술발전, 새 기술도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료와 에네르기, 자재소비를 극력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 석탄과 전기를 비롯한 원료와 에네르기를 적게 쓰면서 주체철과 주체비닐, 주체비료의 생산량을 늘이는데 몰고 가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문예는 실천에 있다. 절약함이나 유류자제수집합은 결코 어느 한 단위, 한개에서 어찌, 오늘에 생겨났던것이 아니다. 그것은 갖추어놓기만 하는것으로 절약투쟁이 대중적의무의 사업으로 되는것이 아니라라는 데 대하여 일관하여 똑똑히 자각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을 추켜세우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말라붙어야 한다. 절약투쟁을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람들이 경건히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틀어대는 한편 이 사업을 착실하게, 굳기

력과 영농물자들을 극력 아껴써야 한다. 각지의 경영공장과 지방산업공장에서 국산화원료,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보다 적은 투자로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 기술혁신의 원바탕을 일으켜야 한다.

경제건설만이 아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절약투쟁에 한걸음이 떨어치 않아야 한다.

누구나 주인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관심하며 무슨 일에서나 앞세워 실속있게 하여야 실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것이 절약사업이다.

공장과 농촌, 학교와 마을 그 어디든 비생산적지출이나 비합리적 소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절약투쟁을 철저히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내밀어서 조국의 부강강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 절약투쟁에서도 과학기술발전, 새 기술도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료와 에네르기, 자재소비를 극력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 석탄과 전기를 비롯한 원료와 에네르기를 적게 쓰면서 주체철과 주체비닐, 주체비료의 생산량을 늘이는데 몰고 가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문예는 실천에 있다. 절약함이나 유류자제수집합은 결코 어느 한 단위, 한개에서 어찌, 오늘에 생겨났던것이 아니다. 그것은 갖추어놓기만 하는것으로 절약투쟁이 대중적의무의 사업으로 되는것이 아니라라는 데 대하여 일관하여 똑똑히 자각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을 추켜세우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말라붙어야 한다. 절약투쟁을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람들이 경건히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틀어대는 한편 이 사업을 착실하게, 굳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호

주제103(2014)년 6월 11일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삼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세멘트직장 재령화회복공정 청년대흥체육소 칠삼소 김책대경수산업소 가공1직장 라남구역체신소 조선체육대학 감독2학부 은물군 은물소학교 인민봉사총구 농목장관리구 수산농장 제2작업반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제7작업반	삼천군 량평협동농장 제5작업반 신원고려약공장 신천군의약품관리소 포항구역 포항식료공장 명천역애국인민소공장 은성군량정사업소 중성분사업소	은성장공장 라남역애국인민소이용물품공정 신의주시은덕원 황해북도제3애방원 재령군 재령국수집 포항구역내축산관리위원회
--	--	--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오늘의 김정은 빨찌산이 되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결의대회 진행

【삼지연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나라 천만군민이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성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월 1일 혜산을 출발한 군인들은 보천보와 리명수, 대흥단 등 항일의 전구들에 대한 답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으며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넘고 새겨안았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결의대회가 16일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결의대회장에 입장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장영철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주체혁명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을 맹목적으로 맹세하였다.

이날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체득한 군인들

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령을 충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의 혈전전투를 헤치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혁명의 뿌리이며 만년제보인 백두의 혁명정신, 주체의 혁명정신을 마른해주시었다.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이들을 탄생시킨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백두산으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어 백두산지구를 혁명의 성지로 훌륭히 꾸려주시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우리 혁명의 명맥,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놓으셨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조하시고 빛내여오신 항일의 혁명정신은 오늘의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사수하는 백두산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에 기록한 자욱을 새기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깃도 심장을 불태우며 투쟁해나갈 정도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보고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우리 세 세대 군인들이 백두산의 깃바탕을 맞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절세의 위인상과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실지 체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심장으로 체득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충대로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업적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백두의 행군 길을 뜻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군인들이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절세위인들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군인적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하고 수호하고 빛내이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항일빨찌산장군들의 회상기학습,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모든 군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착실하게 벌려야 한다.

혁명의 사명부를 결사보위한 항일의 공정원들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모시며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상태양군을 중심으로 사수하는 백두산에 혁명정신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조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명령체계와 군공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단결의 전통, 동지애의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실지 체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심장으로 체득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충대로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업적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백두의 행군 길을 뜻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항일의 승고한 애민, 원민정통을 이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군민혁명적의 주동성이 되어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을 것으로 백두산대줄기를 뿜어내린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두가 백두의 혁명정신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주체의 선군혁명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 관관들인 김광철, 김철수, 사관 안지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옹위의 총대, 백두의 깃바탕을 억세게 틀어안고 있는 김정은빨찌산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뜻없이 이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충대로 끝까지 관철하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투쟁기풍으로 인민대오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결의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과 합창으로 결의대회는 끝났다.

이번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최후승리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충대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업, 선군혁명업, 투쟁정신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김정은혁명장군의 절의 신념과 지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파시하였다.



반침략투쟁의 앞장에 서신 열렬한 애국자의 한생

김응우선생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지인 김응우선생님의 탄생 166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언제나 반침략투쟁의 앞장에 서신 김응우선생님의 빛나는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로 《새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남의 목을 따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었다.》

돌이켜볼수록 김응우선생님은 소박하면서도 성실하고 근면하며 또 의지가 강한분이시었다.

1848년 6월 17일 평양 중성리(당시)에서 탄생하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과 싸우시었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평양에서 사는 지주 리영택의 표를 모방하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민중대로 나오시었다.

여로부터 명승지로 이름높은 고장으로 일러오던 민중대의 이름대음을 탐내어 당시 돈냥이나 있는 부자들은 이 일대의 산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조상의 표를 쓰셨었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추녀났은 민중대의 산당집에서 가난속

에 살아오셨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은 남달라 불같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늘 마을사람들에게 산에 나루라도 한대 더 쉽고 마을에 과일나무도 가까이 조국강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만경봉에 나무를 심으시고 남산기슭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으시었다.

누구보다 조국과 인민,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신 김응우선생님이시였기에 조국 살이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일가분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봉건관료배들과 지주놈들의 착취책봉성에 대하여 깨우쳐주시고 하시고 외척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시고 하시었다.

이렇듯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닌 분이시였기에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미제침략선 《서면》호가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온갖 야수적마함을 저지르고있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었다.

1866년 8월, 침략선 《서면》호의 침입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피눈물 침략력사의 서막이였다.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미제는 증무장한 《서면》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키었다.

미제침략선 《서면》호는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양각도밀에

까지 기여들어 대포와 총을 쓰며 대포를 마구 쏘고 금지를 락탈하였으며 방화를 일삼고 부녀자들을 겁탈하였다.

당시 미제가 《서면》호를 대동강에 침입시킨데는 평양주변의 고대왕릉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약탈하며 무력으로 조선과의 미제침략선 《서면》호로 말하면 증거기관과 뜻을 함께 갖춘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무장함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해외 침략력사에는 배의 행방을 알았으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격침된 적이 없었다.

미제침략선 《서면》호의 격침은 김응우선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우리 인민이 반미투쟁에서 거둔 력사적인 첫 승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서면》호가 격침된 후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배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군함 《해난도아》호를 대동강하류에까지 침입시켜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다.

이때에도 김응우선생님께서 민중대와 그 주변 인민들의 명을 조직하고 판군들에게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해나갈것을 호소하시므로써 겨우들을 쳐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시었다.

그때로부터 함으로 오렌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도 대동강을 반침략투쟁

수장해버리었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은 《서면》호를 흔적도 없이 불살라버림으로써 침략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 조선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 대동강에서 거둔 승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미제침략선 《서면》호의 격침은 김응우선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우리 인민이 반미투쟁에서 거둔 력사적인 첫 승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서면》호가 격침된 후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배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군함 《해난도아》호를 대동강하류에까지 침입시켜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다.

이때에도 김응우선생님께서 민중대와 그 주변 인민들의 명을 조직하고 판군들에게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해나갈것을 호소하시므로써 겨우들을 쳐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시었다.

그때로부터 함으로 오렌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도 대동강을 반침략투쟁

수장해버리었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은 《서면》호를 흔적도 없이 불살라버림으로써 침략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 조선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 대동강에서 거둔 승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미제침략선 《서면》호의 격침은 김응우선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우리 인민이 반미투쟁에서 거둔 력사적인 첫 승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서면》호가 격침된 후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배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군함 《해난도아》호를 대동강하류에까지 침입시켜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다.

이때에도 김응우선생님께서 민중대와 그 주변 인민들의 명을 조직하고 판군들에게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해나갈것을 호소하시므로써 겨우들을 쳐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시었다.

그때로부터 함으로 오렌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도 대동강을 반침략투쟁

언제인가 황해제철소 (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꾸러진 로동자합숙에도 들리시었다.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 보시며 용해공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창문에 드리워졌는 창가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문가로 다가가시어 창가림을 한동안 만져 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밤 일을 한 용해공동무들을

언제인가 황해제철소 (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꾸러진 로동자합숙에도 들리시었다.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 보시며 용해공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창문에 드리워졌는 창가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문가로 다가가시어 창가림을 한동안 만져 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밤 일을 한 용해공동무들을

복 채우자면 두터운 천으로 창문을 가리워주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처럼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용해공들이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수 있겠는가 하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얼굴은 삼시에 붉어졌다.

침실을 환하게 꾸러려고만 노력하였지 밝은것과 어두운것중에 어느것이 용해공들의 휴식에 좋겠는가 하는것까지도 생각해본 적이 못하였기때문이다.

그에서야 일군들은 보통 창가림에 목욕탕을 지으시려는 그이의 구상속에 담긴 심고한 뜻을 깨닫게 되었다.

현환의 옛 토성황자리에 현대적인 목욕탕을 건설함으로써 지난날 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 물때문에 피는 물결을 흘려야 했던 우리 인민들이 오늘은 물로 하여 더 행복하고 평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웠다.

물고기는 물속으로, 청년 그것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이 안아온 또 하나의 시대의 변혁이었다.

본사기자 정순화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있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합숙방을 하나 꾸러도 로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깊이 생각하고 꾸러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에서야 일군들은 보통 창가림에 목욕탕을 지으시려는 그이의 구상속에 담긴 심고한 뜻을 깨닫게 되었다.

현환의 옛 토성황자리에 현대적인 목욕탕을 건설함으로써 지난날 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 물때문에 피는 물결을 흘려야 했던 우리 인민들이 오늘은 물로 하여 더 행복하고 평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웠다.

물고기는 물속으로, 청년 그것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이 안아온 또 하나의 시대의 변혁이었다.

본사기자 정순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기상수문국에서 쫓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기상수문국 종업원들의 쫓기모임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모임에는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서, 해당 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리승일의 보고에 이어 판리위원장 김영민, 부위원장 차철진, 분조장 최영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벌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비록 고귀한 가르침과 대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새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현지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었다고 말하였다.

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 꼭 나쁜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 높은 수확을 실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적인 온실남새재배방법을 완성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농장의 생활환경과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기상수문국 종업원들의 쫓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전정철의 보고에 이어 국장 김대건, 부소장 심명옥, 소장 최홍식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 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상수문사업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기상수문국사업은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기상관측설비들의 현대화를 위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이 간직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기상수문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예보기술과 방법을 개선하며 각종 관측망들의 보급에 이어 국장 김대건, 부소장 심명옥, 소장 최홍식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 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상수문사업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기상수문국사업은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기상관측설비들의 현대화를 위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 내각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근한 대자연조건설구상에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 내각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근한 대자연조건설구상에

박봉주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료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근한 대자연조건설구상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근한 대자연조건설구상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이 연구제때두고 당세포와 근로 단제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짜고 보여 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방향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리강위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까지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이 연구제때두고 당세포와 근로 단제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짜고 보여 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방향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리강위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까지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을 앞둔 대상들이 늘어나고있다.

총리는 축산연구소, 수의병역소, 살림집 건설과 여러 단위들에

서 조정된 출판물을 돌아보면서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현지에서 관계부서 일군들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우리 나라 축산부문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건설하며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집집마다 수를 늘이고 축산물산업을 활성화하자면 축산연구소와 수의병역소건설을 진행시켜 완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총리는 고산과수농장과 고산과수농장농장을 돌아보면서 지력을 높이고 과수와 축산의 고령순환생체계를 확립하여 당의 령도업적들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농원 류승균



박봉주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하며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

와 민족의 운명과 땀수 없이 결합되어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 일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의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해나가는 과정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일관성있게 견지해나가는 과정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혁명위업이 될수 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옹호해나가기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예하고 복잡한 정치경제속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무력으로 하는 혁명대의 주입입단결을 반석같이 다져주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주체적인 령도와 정책들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며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전통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의 신념과 의지,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고 발달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밝히시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오직 자주적인 힘과 주권을 가지고 민족자주의 힘에 의거하여 이룩해나가는 한가지가 력사가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자주의를 굳건히 담보하는 위대한 자주정치이다. 제국주의의 강령에 따라 우익한 온갖 세력의 공격은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세워졌다.

오늘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을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항공우주,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끊임없이 비약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화강국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올바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도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최하의 역경속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승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밝히시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오직 자주적인 힘과 주권을 가지고 민족자주의 힘에 의거하여 이룩해나가는 한가지가 력사가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자주의를 굳건히 담보하는 위대한 자주정치이다. 제국주의의 강령에 따라 우익한 온갖 세력의 공격은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세워졌다.

오늘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을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항공우주,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끊임없이 비약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화강국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의 신념과 의지,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고 발달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밝히시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오직 자주적인 힘과 주권을 가지고 민족자주의 힘에 의거하여 이룩해나가는 한가지가 력사가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자주의를 굳건히 담보하는 위대한 자주정치이다. 제국주의의 강령에 따라 우익한 온갖 세력의 공격은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세워졌다.

오늘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을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항공우주,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끊임없이 비약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화강국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오늘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립, 자주적대화를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전진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밝히시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오직 자주적인 힘과 주권을 가지고 민족자주의 힘에 의거하여 이룩해나가는 한가지가 력사가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자주의를 굳건히 담보하는 위대한 자주정치이다. 제국주의의 강령에 따라 우익한 온갖 세력의 공격은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세워졌다.

오늘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을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항공우주,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끊임없이 비약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화강국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의 닦과 정기가 살아숨쉬고 민족정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적립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자국의 정치적립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정치적립의 준비정도는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진도가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의 위력적자 정치적립,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다. 특히 선군시대에서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견지하며 자원이 있어도 하지 않는 끈질긴 힘에 의거하여 우리 당은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약탈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전쟁행동을 걸을 때마다 짓부셔버리며 자주의 가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의 닦과 정기가 살아숨쉬고 민족정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적립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자국의 정치적립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정치적립의 준비정도는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진도가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의 위력적자 정치적립,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다. 특히 선군시대에서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견지하며 자원이 있어도 하지 않는 끈질긴 힘에 의거하여 우리 당은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약탈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전쟁행동을 걸을 때마다 짓부셔버리며 자주의 가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인민의 민족성과 배척되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배격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조선인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민족의 닦과 정기를 닦아내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고있다. 전체 인민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민족적 위풍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민족성을 높이 발달시켜나가기 위하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모든 선군대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장소들과 새 세기의 요구를 구현하면서 우리 민족의 특색과 감정을 우리 사회주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광망하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의 닦과 정기가 살아숨쉬고 민족정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적립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자국의 정치적립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정치적립의 준비정도는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진도가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의 위력적자 정치적립,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다. 특히 선군시대에서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견지하며 자원이 있어도 하지 않는 끈질긴 힘에 의거하여 우리 당은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약탈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전쟁행동을 걸을 때마다 짓부셔버리며 자주의 가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당당당하게 해나가고있다.

평북땅에 또다시 울려 퍼진 백두산혁명강군의 승전가

공훈국가합창단 평안북도에서 첫 공연 진행

【구성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만사함을 격동시키는 혁명군가의 우렁찬 피성으로 자강방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타격을 안겨준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이 평안북도에서 순회공연무대를 펼쳤다.

16일 구성시에서 첫 공연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종군하며 혁명군가의 장엄한 포성으로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군혁

명나팔수들의 공연을 보게 된 환희와 격정으로 하여 공연장소는 세계적 설레이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노래편곡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여성4중창 《우리 원수님》, 기악3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여성독창 《영변의 비단치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 로동계급이 일하는 일터를 찾고찾으며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대를 이어 수명복, 장군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장 값높고 보

람찬 삶을 꽃피워가는 천만군민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노래한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축복받은 나의 삶》, 《내 심장의 목소리》는 관람자들 로 하여금 경이하는 김정원수님들의 계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의 격조를 높여주고 있음을 절감하게 하였다.

자신의 마음속에 장군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생

산산으로 땅을 걸사우위해온 공장으로동계급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고 하던 경이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장내는 뜨겁게 끓어올랐다.

승리의 추억과 긍지,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심장을 뚫어 오는 곡목들이 현이 무대에 오르는 관람자들의 기쁨과 열정으로 하여 공연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사회주의 지기세》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고 이 세상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절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커다란 예술적감각력으로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는 노래들은 그 어떤 모진 광풍이 몰아쳐와도 당을 따라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이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켜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관철에 용약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열정을 힘있게 구가한 공연은 남성합창 《혁명투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로 끝났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지방순회공연으로 항일유격대식전선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에게 관람자들은 열렬적인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공연장소를 떠날줄 몰랐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이하는 김정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평북로동계급의 단결적열정을 비삼히 승화시켜줄것이다.

공연은 계속된다.



우리 일군들의 삶의 보람과 긍지는 어디에 있는가.

인민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부하며 인민의 총복으로 사는 불같은 사랑과 헌신에 있다. 인민들로부터 우리는 정열은 호칭과 더불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군들속에는 모란봉구역 김마을 1동사무소 유동순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야 하며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서 서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새로 동사무소의 일군으로 배치된 유동순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동지의 면모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우리는 혁명의 수도에서 사

인민의 총복으로 사는 보람

모란봉구역 김마을 1동사무소 유동순동무

는 시민들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합니다.》

유동순동무가 한 이 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동에 있는 아동공원들과 여러 건물들을 일신시키고 돌박산으로 불리우던 야산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동지제의 힘으로 푸른기업을 하지만 에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유동순동무는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잇고 뛰여다녔다. 언제나 밤배인 작업복차림인 그의 모습이 동주민들의 눈에 정겹게 새겨졌다.

새롭게 꾸려진 아동공원에서 는 남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몰라보게 달라진

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유동순동무가 어길수 없는 사업원칙으로 삼는 동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관점이다.

두해전 10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직할시 1유치원(당시) 허준혁어린이의 편지를 보여주시고 은성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그때 허준혁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속에는 유동순동무도 있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빨간별 5개를 안겨주시니 우리 존혁이가 정말 옹구냐.》

유동순동무가 존혁이를 번쩍 안아들고 빙빙 돌리었다. 어머니를 잃은 존혁이의 가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레라 생활의 구

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학습장과 연필도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해주었으며 존혁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도매없이 자주 찾아가 그의 남다른 재능의 싹을 더 활짝 꽃피워주려 각별히 마음을 쓰던 유동순동무였다.

동주민들을 위해 유동순동무가 바친 뜨거운 진정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버섯기지를 꾸러놓고 동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애군인들에게 영양가 높은 버섯을 길러 공급하던 일이며 생일을 맞는 로인들에게 생일기도 차려주고 앓는 주민이 있으면 그길로 찾아가 보약과 영양식품을 안겨주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유동순동무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미담들이 그 얼마인지를 모른다. 하기에 동의 주민들은 유동순동무를 우리 동사무장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질 좋은 민족악기를 더 많이

서흥악기공장에서

서흥군에 가면 소문없이 큰 울림을 하는 자그마한 공장이 있다. 민족악기를 만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서흥악기공장이다.

지난 기간 이곳 악기공장은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언제나 넘쳐 수행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제7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공장의 제품들이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평도 자강정동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악기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악기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가 깃들여진 오렌 세월인민들의 사랑속에 발전하여온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악기입니다.》

전후시기 창립된 공장은 지난 수십년간 여러가지 민족악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위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 기간 많은 예술단체들과 군중예술소조의 예술인들과 소조원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민족악기들이 좋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민족악기의 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창욱, 리영식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민족음악과 군중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민족악기제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연방 최고검찰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식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로씨야연방 최고검찰소대표단

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정원들은 조로친선관계 발전과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다녔다.

성공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선군봉상제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울 체육인들의 불타는 의

우리 시대 참된 인간전형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자

이천 땅의 붉은 선동원-박연화동무의 소행에 대한 일군들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날이 닳도록 땀과 도끼를 내 나려,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조건을 마련하면 된다.》

이런 언저리에서나 선동원으로 부터 우리나오는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될것입니다.

당보에 실린 기사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이천 땅의 붉은 선동원》의 주인공인 이천군 신당향산전면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숭고한 선동원 전형의 기풍이 나팔수들이 우리 일군들의 심장에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특히 성, 중앙기관 일군들속에서 그의 기풍에 대한 지원의 마음들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박연화동무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굳센 결의들이 다져지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철은 말하였다.

박연화동무는 언제나 오성산을 바라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길, 애국의 길을 생각하고 있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조국의 기둥감들로 잘 키워 우리 장군님께 멋있게 내세우기 위하여 수시년을 하루와 같이 순결한 광선과 모성애를 바쳐왔다. 우리 청년들이 박연화동무와 같이 가슴속에 신념과 향심의 기둥을 세우고 애국정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당의 참된 청년전위대가 삶을 빛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급혈자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급혈자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6일 보건성 수혈원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보건부 일군들, 자원급혈자들, 수혈원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세계보건기구 립시대리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우리 나라에서 초청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회 국제연맹대표단,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정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급혈자의 날이 가진 의의와 세계보건기구, 적십자 및 적반회 국제연맹의 협조로 진행되고있는 수혈봉사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혈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올해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주제에 맞게 수혈봉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자원급혈자들에게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양시에출신전선의 공민들을 관람한 다음 우리 나라 수혈부문에 있어 이룩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으며 체육오락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세계급혈자의 날이 운영되었다.

주제에 맞게 수혈봉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자원급혈자들에게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양시에출신전선의 공민들을 관람한 다음 우리 나라 수혈부문에 있어 이룩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으며 체육오락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세계급혈자의 날이 운영되었다.

주제에 맞게 수혈봉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자원급혈자들에게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양시에출신전선의 공민들을 관람한 다음 우리 나라 수혈부문에 있어 이룩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으며 체육오락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세계급혈자의 날이 운영되었다.



영국대사관에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데브리엔 및 북아일랜드연방 양국 녀왕생일 공식기념일(국경절)에 즈음하여 주조 영국대사관에서 16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용 의무성 부상, 오호혈 무역성 부상, 김영석 체육성 부상, 판계부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마이크 존 키포드 영국특명전권대사와 영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며, 영국녀왕 엘리자베스2세께 하의 건강을 축원하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력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비행장에서 판계 장을 단장으로 하 부를 일군과 주조 로씨야연방 최 로씨야연방 특명 고검찰소대표인 전권대사가 맞이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